

# INCREDIBLE MUMBA!



RaonAtti 8th India

2012. 12  
VOL.4

the general editor by Arpita  
editor by Naina  
illustration by Sameer  
photograph by Rahul  
advice by Anushka





# Contents

1. Boys' Home 식구들 소개
2. Street Children Shelter (Juhu YMCA) 식구들 소개
3. 일정표
4. 12월의 인도팀
5. 12월의 행사
6. 에세이





# Boys' Home 식구들

## 1. Boys' Home 식구들 소개



따털

은 갓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오피스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무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 그의 특기이다. 가끔 농담을 하면 무표정으로 웃는 그의 모습이 참 매력적이다. 그가 화가나 있는건지 기분이 좋은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다.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주시는 고마운 분 


오피스의 회계를 담당하는 프라딕. 온화한 미소로 항상 우리를 맞이해주신다. 우리가 장난으로 간단한 힌디를 하면 유쾌하게 웃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간 소심한 면이 있어서 친해지는 데에 조금 시간이 걸렸다. 웃으면서 서랍에서 돈을 꺼내는 그의 모습이 참 보기 좋다. 



프라딕




무케시


항상 모자를 꼭 눌러쓰고 다니는 무케시는 VTC(Vocational Training Center)에서 없어서는 안될 심부름꾼이다. 자주 마주치지는 않지만 마주칠 때마다 이를 드러내고 인사하며 우리를 반겨주신다. 가끔 일하는 것을 귀찮아하셔서 점심 시간 때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 

2. Street Children Shelter (Juhu YMCA) 식구들 소개




마노즈

Bombay YMCA의 산하 기관인 bandra YMCA에 소속되어있는 Manoj는 소셜 워커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 Juhu YMCA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낸다. 항상 우리가 갈 때마다 따뜻한 표정으로 반겨주신다. 아이들의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라온아띠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또한 관심이 많다. 

**호**기심이 많고 붙임성도 무척 좋아서 가장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한 친구이다. 말이 무척 많고 벼이야(형) 보다는 디디(누나)를 좋아해서 어디서나 ‘디디~’를 연발하는 무척 귀여운 친구이다. 포레 아이들보다 영어 실력도 월등해서 다른 친구들과 아띠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기도 하는 똑똑한 녀석! 엮어치기 당하는 것이 뭐 그리 좋은지 만날 때 마다 자신을 내팽개쳐 달라고 달려든다. 



비키

**이** 친구는 입술을 자꾸 깨무는 버릇이 있어 처음 만났을 때 일반인 보다 두배나 큰 입술로 인사를 건네 왔던 친구이다. 비키와 함께 스트리트ildren 센터 주변을 소개해주었다. 아침에 비치에서 축구를 하는데 자신들은 축구공 대신 야자를 따다가 축구를 한다며 무척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다. 아비썬 역시 디디(누나)를 무척 좋아해서 비키와 대화중인 디디(누나)를 옆에서 실 틈 없이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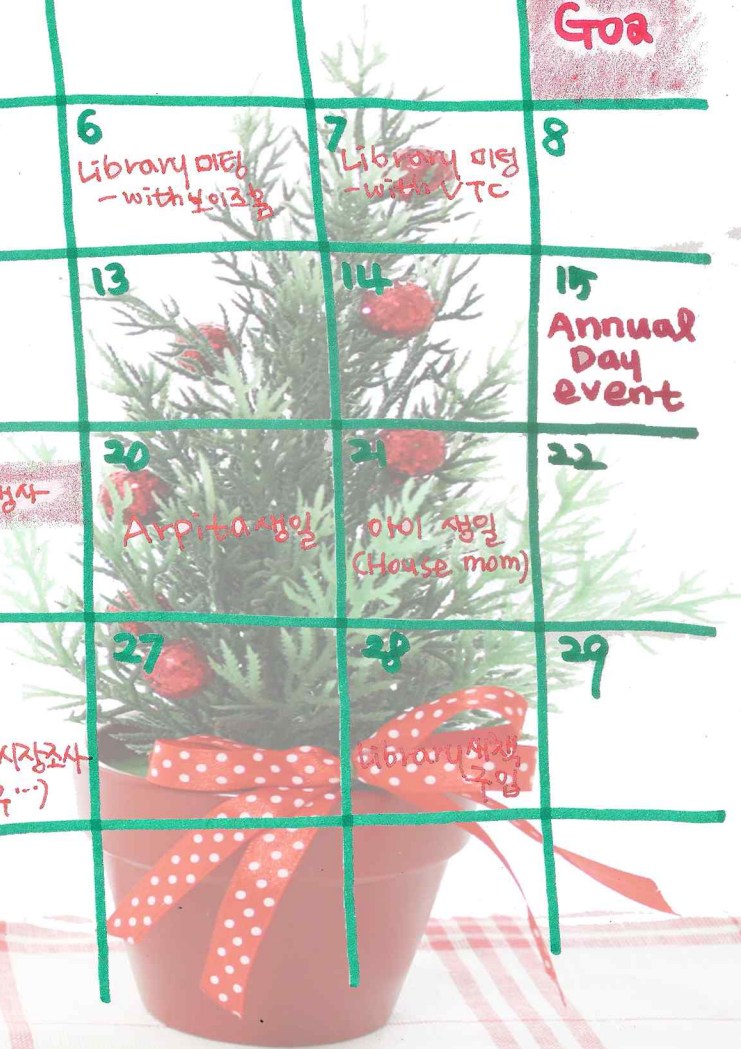
아비썬

3. 일정표

# 12

12월  
일정표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Goa
2 vacation	3	4 국외부과자선거 음바이총영사관으로	5	6 Library 미팅 - with 노이름	7 Library 미팅 - with VTC	8
9	10	11	12	13	14	15 Annual Day event
16	17 Bandra Branch Juhu 일정 논의	18	19 크리스마스 행사	20 Aparita 생일	21 아이 생일 (House mom)	22
23 크리스마스 행사	24 크리스마스 행사	25 크리스마스 행사 (Juhu) Melvin의 초대	26 Library 시장조사 (책, 가구...)	27	28 Library 시장 조사	29
30	31 New Year's Day event					



히피의  
낭만이  
가득한  
Goa로의  
첫 휴가


인도에서 Goa는 천국으로 일컬어지는 최고의 휴양지이다. 인도에서 만난 친구들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게 Goa에 가봐야 한다는 말을 들은 덕에, 첫 휴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휴가지로 Goa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휴가, 11월 캠프를 다녀온 직후 인도팀은 2박 4일 간 Goa에 다녀왔다.

Goa는 포르투갈이 처음 인도를 발견했을 때부터 교역을 시작한 항구도시로서, 제국주의 시대에 건설된 수많은 유럽식 건물들이 존재한다. 크리스찬의 비율이 인도 내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아직까지도 포르투갈과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독특한 문화양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고아는 뭄바이보다 남쪽에 위치한 탓에 한결 이국적인 정취와 뜨거운 태양을 느낄 수 있었다.



4.12월의 인도편


히피의  
낭만이  
가득한  
Goa로의  
첫 휴가

우리는 Goa YMCA Guest House에 머물며, Baga, Anjuna, Colba, Candolim 등의 해변과 Old Goa의 유네스코 문화 유적지, Dona Paula 등을 찾아갔다. 여행자들은 모두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Goa에서 뚜벅이로 여행을 하다 보니, 숲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허벅지까지 오는 물길을 건너기도 하는 등 나름의 아찔하지만 유쾌한 추억들이 만들어졌다. 특히 Saturday Night Market에서 구매한 히피풍의 옷을 입고, 풍성하고 값까지 저렴한 씨푸드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단원들이 즐거워했다는 후기. 그렇게 짧지만 짝 찬 우리의 첫 번째 휴가가 끝이 났다. 



# 4. 12월의 인도팀

## 단 한 표도 포기할 수 없어! 인도팀의 대선투표 이야기

을 한해 한국은 대선으로 뜨거웠다. 그렇지 않아도 여전히 무더운 인도의 겨울을 보내는 아띠들의 마음은 대선 소식으로 인해 더욱 후끈 달아올랐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선을 겪는 다양한 구성원의 우리들은 한국의 소식들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다양한 기사를 읽어보고, 밤새 다운받은 대선 토론을 함께 시청하고, 앞으로의 한국의 5년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투표 당일, 비밀선거의 원칙을 지키고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은 나만의 후보를 가슴에 품고 우리 팀은 뭍바이 총 영사관으로 향했다. 다행이도 다른 팀에 비해 영사관이 한 시간 거리의 비교적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어렵지 않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투표를 하는데 걸린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이 다섯 표를 행사하기위해 한국에서 어렵게 재외국민부재자투표를 신청하고 타국의 투표소를 찾으며 흘린 땀방울들은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뿌듯함을 남겨주었다. 먼 인도라는 나라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뽑기 위해 던졌던 소중한 다섯 표.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들의 뜨거운 나날 중 하루였다. 





4. 12월의 인도팀


차츰  
모습을  
드러내는  
인도팀의  
Library  
Project!

11월부터 숨 가쁘게 달려왔던 도서관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중간에 천 권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며 팀원들을 멘붕상태에 이르게 하긴 했지만, 병찬 단원의 천고의 노력 끝에 그 데이터는 복구되어 지금 우리의 손 안에 고이 모여져 있다. 12월에는 도서관의 주 이용층인 보이즈홈 아이들, VTC 여학생들, VTC 여성들을 대상으로 세 번의 미팅을 가졌다. 미팅에서는 주로 1. 그 동안 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2.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제안들이 있는지, 3. 꼭 필요한 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이 다뤄졌다. 생각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 놀랐다. 처음에 우리 팀이 생각했던 도서관과는 달리, 실제로 아이들과 여성들이 원하는 도서관은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곳이었다. 또한, 생각보다 책을 대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성인 여성들의 경우에는 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책을 빌리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팀이 지금껏 놓치고 있었던 제일 중요한 목소리들을 늦게나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4. 12월의 인도팀

차츰  
모습을  
드러내는  
인도팀의  
Library  
Project!

또한, 이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도서관에 필요한 가구부터 이 가구들의 재배치까지 오피스와 새롭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오피스도 우리를 매개로 예비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 도서관 프로젝트는 현재 가구 재배치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거의 마쳤다. 또한, 도서관 규칙을 만들어 확정하였고 한국 YMCA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가장 시급히 필요했던 힌두어, 머라티어 책들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가입신청서와 대출증을 만들고, 구체적인 대출반납 시스템을 꾸리고, 다음 기수와 봉사자들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교육을 위한 자료들을 만들어 이용자 교육을 마친 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으로 도서관이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월 17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라온아띠 8기 인도팀의 맘이 흠뻑 젖은 도서관! 곧 개봉박두! 



# 4. 12명의 인도편

## Street Children Shelter in Juhu

Mumbai의 Juhu에는 바다를 보러 오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이 없이 떠도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Juhu YMCA의 Juhu beach street children shelter가 있다. 가장 어린 4살부터 대학생까지 총 15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직접 밥을 하고 청소도 한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외에는 보통 낮잠을 자거나 뛰어 노는 것이 이곳 아이들의 일정이다. 바로 옆에 바다가 위치하여 마땅한 공간이 없지만 아이들은 모래 위에서 축구를 하기도 하고, 크리켓도 하고 가라테도 배우는 등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이 기관에 정기적으로 오는 소셜 워커들이 있다. 그 중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와서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2명의 대학생 소셜 워커는 현재 라온아띠 단원들과 함께 서로 프로그램을 보조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소셜 워커가 있어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미국식 발음도 잘 알아듣는 편이다.



4. 12월의 인도편

Street  
Children  
Shelter  
in Juhu

**라**온아띠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 활동지가 boys home이기 때문에, 5명의  
단원들이 모두 Juhu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2명의 단원들이 약  
일주일에 3번씩 이 곳을 방문한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보통  
하루 2시간 정도 활동을 한다. 한국 전통 게임 배우기, 인도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강남스타일 댄스 배우기, 신문지를 이용한 탈 만들기, 도서관 작업, 소셜  
워커들과 미술 활동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5.12일의 행사

처음  
타지에서  
맞는  
귀빠진 날,  
Arpita의  
생일


지난 20일은 Arpita의 생일이었다. 앞뒤로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어서 바쁜 생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보이즈홈 식구들과 팀원들이 세심하게 챙겨준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먼저 아침 기도 모임에 초대받은 우리는 수많은 축하와 소망의 말들을 들을 수 있었고, 근사한 축하 노래도 선물로 받았다. 오전에는 오후반 아이들이 모두 함께 둘러앉은 가운데, 난생 처음 보는 케이크 4개를 田자 모양으로 놓은 대형 케이크에 쿠키호일로 만든 왕관까지 쓰고 생일 축하를 받았다. 아이들은 작은 쪽지, 자신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벤티, 아껴둔 초콜릿 등을 선물로 주었다. 작은 선물이지만 코끝이 찡해졌다. 저녁에는 팀원들과 조출한 식사를 하기 위해 가까운 레스토랑을 찾았다. Naina는 Naina 과일 마음껏 이용권, 외출 동행권, 휴가 동행권 등 알찬 쿠폰세트를 선물해 또 한 번 나를 놀라게 해주었다. 레스토랑에서 특별 케이크를 만들어 기타반주에 소소한 축하도 함께 해주었다. 한두 명씩 슬금슬금 모여드는 직원들의 수줍은 모습이 우리를 웃음 짓게 했다.



5.12월의 행사

처음  
타지에서  
맞는  
귀빠진 날,  
Arpita의  
생일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오자 또 하나의 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우스 맘인 아이와 기관장 알렌의 아내로 우리와 자주 만나는 락쉬미가 함께 마트에 가서 가방을 선물로 준비한 것이다.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물론 가방은 지극히 인도스타일이라 남은 1개월 동안 밖에 들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마음만큼은 1개월용이 아니라, 두고두고 기억될 것 같다. 



5.12월의 행사

## 어떤 크리스마스

매일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 속에 크리스마스가 과연 올까 싶었지만, 뭄바이에도 기쁨 가득한 성탄절이 찾아왔다. 이 곳 Andheri Branch에서만 500명이 넘게 참여한 Mela(Festival)을 포함하여, 보이즈홈 아이들은 3번의 공연 행사를 가졌다. 그 외에도 24일 자정까지 함께 기다리며 기념한 일, 아이들이 다른 Branch의 행사에 참여한 일, 다른 기관이나 개인 기부자들이 찾아와서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나누어 주거나 마술쇼 등을 보여준 일을 모두 합치면 보름 가까이 매일 크고 작은 행사가 이어졌다, Mela는 인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축제형태로 작은 장이 열리고, 이런저런 구경거리가 함께 하는 특징을 가진다. 보이즈홈에서는 농구 코트에 작은 스테이지를 마련하고, 사회자가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며 중간 중간 여러 공연이 이어졌다. 한편에서는 각종 음식을 즉석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어 다양한 인도의 간식거리를 맛볼 수 있었으며, 게임부스와 놀이기구 코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 날은 Juhu Street Children Shelter에서 온 아이들이 직접 만든 악세서리와 카드를 판매하는 코너도 마련되어 더욱 의미 있었다.



# 어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이브, 아띠들은 아이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늦은 밤 시작된 농구 매칭은 짙짙한 저녁 공기를 덥혀 주었고, 그 열기에 힘입어 제일 나이가 어린 아디까지 자정이 오는 줄도 모르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아침부터 Melvin의 초대로 Mumbai Central로 향했다. 이미 델리에서 공부하는 Tania와 친구들이 쿠키를 만들고 있었다. 곧 이어 Melvin의 형님 식구들이 도착하며 금세 집안이 북적북적해졌다. 이런저런 요깃거리가 연이어 나오고, 우리는 음식을 돕기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며 인도 가정의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 있었다. 풍성하고 정성이 느껴지는 식사를 마치고나니, Melvin이 트리 밑을 살펴보라고 했다. 어젯밤 산타가 우리를 위한 선물을 두고 갔다는 것이다. 섬세한 그의 배려와 관심이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다.


저녁엔 Juhu의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했다.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고, 우리도 간단한 무언극을 준비해 선보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Juhu 아이들과 친밀감도 쌓고, 겨울 해변의 낭만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인도의 크리스마스는 하루가 아니라 한 열흘쯤 되는 듯 길고도 뜨거웠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나눔과 사랑이라는 크리스마스의 미덕을 잘 실천하는 곳이 바로 이 곳 아닐까.





5.12 어린이 행사

이런  
새해맞이,  
네가  
처음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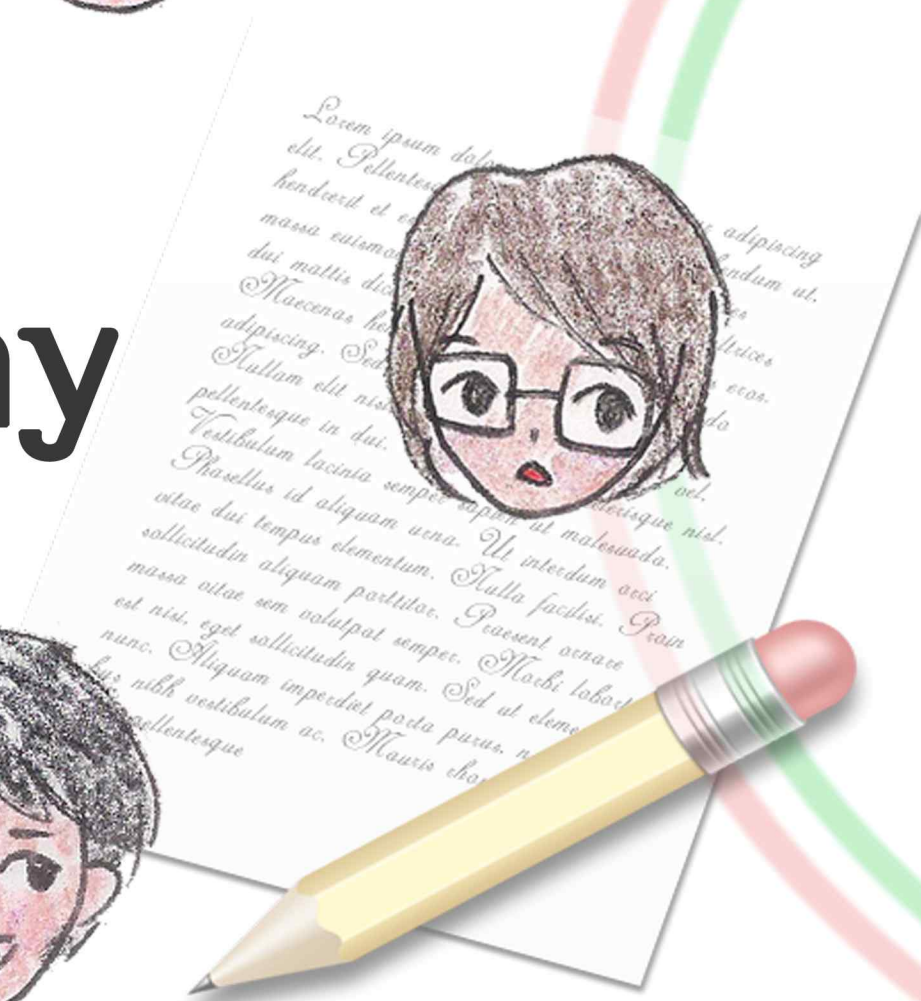
**보**이즈홈의 새해맞이 행사는 특별했다. 자정에 가까운 밤 열시. 운동장에서는 앰프를 통해 머라티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익숙한 듯 줄을 섰고 곧 게임이 시작되었다. 운동장의 저 끄트머리에는 각각 델리, 뭄바이, 첸나이, 께랄라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네 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아이들과 막춤을 췌다. 정말로 '막' 춤을 췌다. 노래가 멈추면 가고 싶은 도시로 꼬꼬마들과 손을 잡고 뛰어갔다. 제비뽑기로 뽑힌 도시를 찾은 친구들은 아웃.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막춤과 인도의 4대도시 투어는 계속 되었다. 그 다음 게임은 노래가 멈추면 의자에 먼저 앉는 비교적 간단한 게임이었다. 이 간단한 게임을 하며 아이들을 지치지 않고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웃었다. 자정이 다가오자 아이들과 우리들은 손에서 손으로 촛불을 옮겼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순 없었지만 느낄 수는 있었다. 돌아오는 해에는 좀 더 행복하길. 건강하길. 웃을 일들이 많길. 사람들은 이 세상 여기저기에 흩어져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새해를 맞겠지만,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이것 아닐까. 2013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그 어떤 새해보다 많은 'Happy New Year'를 들은 올 한해, 정말로 '해피'해 질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든다. 





5인 5색

# Essay



## 12월 에세이-Arpita(선영)

### [30도의 크리스마스]

12월의 마지막은 몹시 바빴다. 크고 작은 크리스마스 행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곳곳에 열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사 때 선보일 공연을 연습하고, 여기저기 얼굴을 비추며 12월을 다 보냈다. 한국에서 연말이라면 집에서 수면양말 신고, 굴을 까먹으며 TV를 보는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땡볕에 아이들과 텅구는 여기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가장 선선한 날씨라는 지금 뭄바이의 기온은 한낮 기준 30도 수준. 우리는 조금만 걸어도 땀이 송송 솟는 겨울을 지나고 있다. 한국에서 친구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는 예보에 몇 배는 더 들떠보였고,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유난히 조금은 짙은 바람이 그리운 12월이었다.

이곳의 크리스마스 풍경은 참 특별하다. 트리엔 솜으로 장식한 눈이 없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해 함께 강당을 꾸밀 때도 아이들은 눈꽃이 된 지 몰랐다. 그제야 내가 지금 더운 나라에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대신 알전구에 화려한 별 모양의 갓을 씌워 주렁주렁 내건 장식이 아주 흔하다. 작은 찰흙인형과 나뭇가지, 돌 등의 자연 지물을 이용해 아기예수의 탄생 장면을 만들어서 현관에 전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꼭 한 가지 같은 것은 이곳에서도 아이들은 산타를 기다리고, 어른들은 서로 따뜻한 인사와 함께 연하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Andheri YMCA 현관에서도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아기예수의 탄생 장면은 일주일 넘도록 정말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이 종종 새로운 전구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뿌려놓은 씨앗이 싹트면서 온통 푸릇한 새싹이 땅을 뒤덮기도 했지만,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장면은 외로웠다. 그리고 대망의 24일, 자정까지 우리는 함께 웃고, 떠들고, 춤추다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아기예수가 탄생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아이들의 환호와 박수소리가 이어지고, 농구 매칭과 격렬한 춤으로 지친 우리는 따뜻한 짜이 한잔에 금세 몸이 노곤해져서 단 잠에 빠졌다. 다음 날도 우리는 Melvin의 점심 초대와 Juhu의 행사 초대에 가야했다. 연말의 대도시가 언제나 그렇듯 꽉 막힌 차도와, 바글바글한 해변의 밤, 파티로 향하는 인파가 함께했다. 그렇지만 작은 촛불 하나에 기원을 담고, 축복을 담고, 행복을 담는, 정말 정신없고, 힘들지만 충만한 크리스마스였다.

크리스마스 주간이 끝나고, 다시 새해가 찾아온 지금까지... 마치 세상사람 모두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인 것만 같은 요즘 나도 종종 한국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미안해질 정도로, 아이들은 자주 디디엄마, 아빠가 보고싶냐고 묻는다. 그러면서 자꾸만 한국에 돌아가는 거냐고 묻는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요 녀석들은 벌써 철이 들어, 그리움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차마 우리한테 가지 말라고 징징거리거나 떼쓰지 않는다. 그저 언제 다시 오냐고, 꼭 다시 오라고 말할 뿐. 그럴 때면 참 짠해진다. 요 방울 같은 녀석들을 두고 어떻게 발걸음이 떨어질까 싶다.

내 청춘 23살의 2012년만 끝난 것이 아니다. 참 짠하고, 길었고, 또 다시 짧았던 뭄바이 생활 5개월도 끝나가는 것이다. 어떤 이별을 할 것인가는 사실 준비하기 나름이고,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전해주기 나름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이 찾아왔어요."라고 피해자가 되어 억울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이 아니라, 함께하는 때 순간 우리는 사랑을! 그래서 지금 여기 뭄바이는 뜨거운 겨울을 지나고 있다.

[Boys home 아이들]

인도에 차차 적응해갈 즈음, 우리팀은 10월 초에 boys home기관이 있는 Andheri YMCA 로 이사를 왔다. 인도 첫 기수인 만큼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이 마련되어야 했기 때문에 9월 한달 동안 우리 집은 공사중이었다. 거주지를 한 번 더 옮겨야 한다는 불안함도 있었고 새 집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게다가 활동지와 거주지가 같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우려를 했다.

어쨌든 그렇게 이사를 오고, 약 65명의 boys home아이들과 첫 인사를 했다. 굉장히 밝고 씩씩하고 타인에 대한 낮가림이 거의 없었다. 아마 우리 말고도 다른 봉사자들이 그만큼 이 곳에 많이 찾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5명이 첫 인사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꼬마가 내 뒤로 뛰어와서 물어보았다. “didi, what is your name?”

너무 당돌함에 조금 놀라기도 했고 귀엽기도 했던 꼬마와 그 날이 아직도 생각난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이후 일어날 수 많은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65명의 남자 아이들이 살고 있는 boys home. 가정사도 각각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취약 계층 부모들이 아이를 이 곳으로 보낸다. 처음에는 고아원인줄 알았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있고 아주 가난하지 않은 아이들도 이 기관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다.

어린 꼬마부터 중, 고등학생 그리고 채 10명이 되지 않는 대학생까지 있다. 아이들은 보통 이른 아침부터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세 번 농구 코치를 받고, 학교에 가고, 신나게 뛰어 놀면서 하루를 보낸다. 매일이 지루하면서도 순조롭게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나 우리 라온아띠가 없어도 아이들은 잘 지냈을 것이다. 약 한 달밖에 활동이 남지

않은 지금, 나는 아이들한테 어떤 누나였으며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내가 잘 한건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다.

아이들은 아주 밝고 참 잘 웃는다. 부끄러움도 많지만 또 애교도 많다. 같이 밥을 먹다가 웃어보이면 같이 쪽스럽게 웃으면서 어쩔줄 몰라한다. 순해 보이지만 농구할 때는 땀을 뿜뿜 흘리면서 한다.

굉장히 짓궂기도 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건드리고 숨고, 내 행동, 말투를 지겹도록 따라하고, 간혹 내 물건을 숨겨서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둘러서 정신없이 말을 걸기도 한다.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닌데 항상 보면 반가운지 안기고 따라오고 난리도 아니다. 이런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한국에 돌아갈 때는 정말 많이 울 것 같다. 보고싶어서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

축제와 행사가 많은 인도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사를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럴 때는 보통 외부 사람들 또는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외부 아이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면 어찌나 질투를 하는지 모른다. 마치 싸울 것처럼 진지해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다. 아이들이 우리를 많이 좋아하나보다. ‘즐거운 것은 항상 boys home과 함께...’라는 원칙을 항상 지켜야만 하나보다.

하루에도 65명의 아이들과 마주하고 얘기하고 놀고 하다보면 즐겁기도 하지만 지치기도 한다.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관심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나로 인해 상처를 받는 아이들도 있다. 내가 무관심했던지, 나에게 화가 났다며 자신이 화가 났음을 알리는 아이들은 종종 날 당황하게 한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가끔은 나도 억울하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도 관심을 가져다 달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나는 먼저 가서 말을 건다.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아이들은 금새 화를 풀어버린다.

12월 에세이-Anushka(현지)

[Boys home 아이들]

이 곳에서 후회없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돌아가자는 내  
신념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친해지고 마음이 열리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나를 믿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털어놓기도 한다.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슬퍼보이기도  
한다. 듣는 나도, 말하는 사람도 서로 울 것 같지만 그 모습이 너무  
민망해서 결국 웃게 된다. 세상에 슬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할 줄도 알고 누구보다도 씩씩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참 기특하고 사랑스럽다.

## 12월 에세이-Naina(성수)

하나. '그들'과 '나' 사이

짧지만 길었던 일주일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주말이다. 대도시 뭍바이에서 지내는 일요일은 사실 서울에서 보내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숙소 주변의 큰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과일을 잔뜩 사 오기도 하고, 휘황찬란한 몰에 가서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세계적인 체인점의 커피를 한잔 마시며 그간의 피로를 풀기도 한다. 때로는 가지런히 진열된 상품들 중 건질만한 것이 없나 이리저리 둘러보기도 하고, 개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값싼 인도의 물가를 입이 닳도록 칭찬하며 집어 들고 계산대로 향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이 그들과 나 사이의 거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쉽게 써버리는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야만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만큼의 그것일 수도 있다. 한국에 있을 때 보다는 훨씬 적게 소비한다, 그래도 휴일인데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면 어떤가, 그럼 이 곳의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이 생활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등의 핑계거리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 둘 짙 올라올 때면 그 거리는 더욱이 좁힐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정말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서로의 아픔을 나눌 때, 그 아픔에 공감하고 이를 보듬고자 노력할 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누군가의 행동은 그 사람 자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내가 친구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너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신뢰를 주는 행동을 보여주었는지 되돌아본다. 비단 이 곳에서의 생활만을 되돌아볼 것은 아니다. 그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생활 전반을 다시 생각해봐야지. 생각과 실천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괴리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고민해본다.

둘. 이별을 준비하는 자세

시바는 내게 물었다. '왜 왔느냐'고. 그의 질문의 요지는 이랬다. 어차피 정해진 짧은 기간의 만남이고, 그 기간에 아무리 친해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헤어진다. 아이들은 그 이별에서 분명 상처받을 것이다. 그게 내가 너와 거리를 두려는 이유다. 이런 결말이 뻔히 보이는데, 너는 왜 왔느냐. 사실 모두 맞는 말이라 딱히 어떤 대답을 늘어놔야 할지 막막했다. 결국 이렇다할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나는 정말로 왜 왔을까에 대한 물음표만 하나 더 얻었다.

라온아띠 단원의 이름을 얻게 되며 많은 만남이 있었고, 또 그 만큼의 이별을 겪었다.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없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들도 팀원들과 가졌었다. 그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다잡았지만 결국 중국에 가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 일쑤였다. 남겨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쓸쓸하다고들 하지만 떠나는 사람의 마음도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들이 소중한 이유는, 이 만남이 상처로만 남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시바를 만났기 때문에 얻은 소중한 감정들, 생각들은 나도 시바도 한층 더 키워낼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과 인도라는 서로 생경한 나라의 사람들이 만나,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배워간 과정 자체가 나에게 큰 축복이었다. 헤어짐이 무서워 서로 벽을 쌓지는 말자고 이야기해야겠다. 충분히 후회 없이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평평 울며 헤어지자고. 헤어졌으니 다시 또 만날 수 있다고. 내게 인도 소식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시바에게 한국이 좀 더 친근한 곳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만남은 이미 유의미하다. 하지만 나는 또 헤어지는 그 순간에 마치 평생 다시는 보지 못할 것처럼 평평 울겠지. 손수건을 준비하자. 그리고 툭툭 털고 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야겠다.

셋. 아람세 아람세, 서로 다른 채로 부등켜 안고 살아가기

힌두어로 '아람세'는 '천천히'라는 뜻이다. 라온아띠 기간 중에 무엇을 배웠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천천히 함께 걷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싶다. 사실 '배웠다'라는 과거형을 쓸 수 있는지도 의문이긴하다. 지금도 열심히 넘어지고 부딪치고 깨지는 중이고, 새롭게 깨닫고 반성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열 걸음을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로 라온아띠에 지원했고 이 곳 인도에서 지내고 있지만, 항상 나는 혼자 저만치 열 걸음을 먼저 가고 있었던 것 같다. 무언가 많이 하고 싶다는 욕심, 잘 할 수 있다는 자부심,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는 오만함. 이런 것들이 나를 내 주변으로부터 열 걸음 떨어진 곳에 있게 한건 아닐까.

아람세 아람세. 느리지만 함께 걷는 한 걸음을 위해서는 좀 더 주변을 둘러봐야 겠다. 그리고 나만의 잣대로 무언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겠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귀도 마음도 한 뼘 더 열어 둘 것. 모두가 같은 마음일 수 없고, 같은 마음일 필요도 없다. 다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위에서 다름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내 옆의 친구와 어깨를 걸고 한 걸음을 걷고 있음을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 같다. 식상하고도 또 식상한 이런 것들은 왜 겪기 전에는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래서인지 이번 성장통은 유독 더 아팠던 것 같다. 덕분에 한층 더 성장했기를.

[다름과 틀림에 관하여]

라운아띠 활동이 5개월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동안 했던 일을 되짚어 보며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해 보았다. 먼저 떠오른 단어는 아쉬움이다.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것이 눈앞에 들어왔다. 욕심이였을까, 라고도 생각해 보았지만 욕심은 아니었다.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다만 함께 하지 못했기에 이루지 못했다. 돌아켜보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던 것일까.

다른 사람과 5개월 동안 같이 생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선불리 단정 짓기는 어렵다. 5개월 동안 보여진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 말하기는 더 어렵다. 20여년 넘게 같이 생활한 우리들의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처음엔 단원들과 다투고 부딪히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오히려 에너지 고갈만이 찾아왔다. 다시 재충전할 시간도 없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프로그램 안에서 갈 길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다. 당연스레 해야 할 과업과 프로젝트는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다. 서로를 감추고, 서로를 힐난하며 시간을 보낸 것이다. 조금 양보하면 되는 것인데, 라는 마음은 움직였지만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다. 웬지 양보하면 지는 기분에 사로 잡혔다. 의견을 말하기 보단 침묵을 지켰다. 결국 나 자신조차 다른 사람을 품을 용기가 없는데, 남이 나를 받아주지 못한다고 남의 탓만 했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다. 다른 사람이 나와 비슷한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나와 같은 생각은 할 수 없다. 후회와 반성하는 많은 시간이 흘렀고, 다름과 틀림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나와 다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전혀 다르다. 자라온 환경도

외모도 말투도 심지어 행동도 다르다. 그런 사람이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낯선 사람과 함께 생활해야만 한다. 처음엔 서로를 탐색하며 경계한다. 서로의 울타리 속에서 낯선 이방인을 보자마자 환영하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는 그렇게 만났고,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잦은 다툼을 했다. 상처를 입었고, 아물기 전에 또 다투었다. 결국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아니 본질적으로 다름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옳았다. 그 사람의 다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한 내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그 사람을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고치려고만 했다. 고쳐지지 않는 부분은 틀린 것이라고 단정 짓는 습관이 생겼다. 누구도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듣는 귀는 그렇게 들렸을 것이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틀린 것은 너야'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은 이 말에 분명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 작디작은 의사소통부터 원활히 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초라하게 그려진다.

초라함 뒤에는 불신만이 짝 티고 있었다. 우리에게 틀린 부분은 없었다. 서로가 지닌 좋은 부분을 공유하는 법을 몰랐다. 어떻게 공유하면 우리의 파이가 커지는 것인지를 몰랐던 것이다. 안전장치로 '회복적인 서클'을 배웠지만, 말 그대로 안전장치일 뿐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과 다름없다. 너무 뒤늦게 깨달은 사실이지만, 이제 약간의 시간만이 남았다. 남은 시간 동안엔 잘못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고 싶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던 다름에 대해서 그리고 틀리다고 단정 지었던 잘못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 '짧았지만 내 생애 가장 뜨거운 날들'로 기억되길 바라며. (덧붙여, 내겐 첫사랑과 같은 라운아띠에게 박남철 시인의 첫사랑이라는 시를 보낸다)



[다름과 틀림에 관하여]

고등학교 다닐때  
버스 안에서 늘 새침하던  
어떻게든 사귀고 싶었던  
포항여고 그 계집애  
어느 날 누이동생이  
그저 철없는 표정으로  
내 일기장 속에서도 늘 새침하던  
계집애의 심각한 편지를  
가져 왔다.

그날 밤 달은 뜨고  
그 탱자나무 울타리 옆 빈터  
그 빈터엔 정말 계집애가  
교복 차림으로 검은 운동화로  
작은 그림자를 밟고 여우처럼  
꿈처럼 서 있었다. 나를  
허연 달빛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얻어 맞았다.  
그 탱자나무 울타리 옆 빈터  
그 빈터에서 정말 계집애는  
죽도록 얻어맞았다 처음엔

눈만 동그랗게 뜨면서 나중엔  
눈물도 안 흘리고 왜  
때리느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달빛 아래서 죽도록  
얻어맞았다.

그날 밤 달은 지고  
그 또 다른 허연 분노가  
면도칼로 책상 모서리를  
나를 함부로 깎으면서  
나는 왜 나인가  
나는 왜 나인가  
나는 자꾸 책상 모서리를  
눈물을 흘리며 책상 모서리를  
깎아댔다.

[첫사랑, 박남철 시인, 전문(全文)]

## 12월 에세이-Rahul(우제)

['집'으로 초대 받다.]

나는 Rahul이다. 인도에 와서 생긴 나의 새로운 이름이다. 라온아띠 인도팀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Boy's Home을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우리에게 호기심을 많이 보였던 친구 이름도 Rahul이었는데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친한 친구사이로 만들어 버렸다. Rahul은 Boy's Home에서 지내고 있는 5명의 college학생 중 한명이다. 장난기도 많고 운동을 좋아하고 나와 비슷한 점이 많아 어느덧 다른 친구들보다 부쩍 친해져 버렸다. 때로는 진학에 대한 고민들이나, 이성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친구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까지도 이야기 하곤 한다. 하지만 내가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전이나 다른 단원들에게 단어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그 단어를 영어로 줄줄이 설명하면서 천천히 이해하며 대화를 하면서도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신나게 대화를 한다.

한 해가 마무리되기 직전에 Rahul이 나에게 뜻밖에도 이야기를 했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것 이었다. Boy's Home 아이들의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집을 방문하면 인도의 빈부의 격차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선뜻 수락하고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Grace이모님께 허락 받은 후 주일날 교회를 갔다가 라홀과 함께 집으로 가기로 했다. 라홀의 집은 Mumbai Central에 있는 교회와 그리 멀지 않다고 했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바나나를 한 송이 사서 가는데 가족들이 매일 아침 밥 대신 바나나를 먹는다고 이야기 해 주었다. 택시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하는데 택시가 무척 좋은 집들이 즐비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 라홀이 자신의 집이 이 근처라고 해서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닷가가 보이고 그 골목을 돌아 나오자마자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고층 아파트와 겹으로 보기에도 초라해 보이는 2층집들이 다닥다닥 모여있는 마을이 보였다. 오랜만에 자신의 집에 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친구가 함께 왔기 때문인지 라홀은 무척 들떠 보였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다. 그 앞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니 가게는 그 자그마한 구멍가게가 전부인 듯 했다. 구멍가게를 지나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로 들어갔다. 통로는 내 양팔을 펼 수 없을 만큼 좁았다. 통로를 지날 때 앞에서 사람이 나오고 있었는데 어깨를 최대한 피하더라도 부딪히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좁았다. 통로를 지나 바로 왼쪽으로 돌아마자 생소한 풍경들이 눈앞에 있었다. 앞서 지난 통로보다는 넓었지만 넓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무수히 많은 문들과 다른 골목들 그리고 계단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흡사 사다리와 같은 계단들이 무척 많았다. 골목길은 무척 길었지만 그 계단들이 너무 많아 시야를 가렸다. 골목길의 바닥은 물로 흥건했다. 라홀을 따라 가면서 본 것이지만 양쪽으로 집들이 있고, 집들의 입구가 골목길 쪽을 바라보는데 바로 그 앞에서 빨래와 식사준비 그리고 세면과 샤워도 하고 있었다. 지금은 건기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기 때는 정말 열악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얼마 건지 않아 라홀의 집에 도착했다. 라홀의 집은 2층이었는데 한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복도가 있었고 그 앞쪽으로 방하나 오른쪽으로 방하나가 있었다. 처음에는 보기보다 넓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보이는 방 하나는 친구의 집이고 자신의 집은 오른쪽에 보이는 5~6평 남짓한 방이라고 했다. 가전제품이라고는 TV하나가 있었고 두 사람이 누우면 딱 찰 것 같은 공간에서 자신을 제외한 4명의 식구가 살고 있다는 말에 너무 놀랐지만 표현은 못했다. 라홀은 집에 오는 것이 싫다고 했다. Boy's Home규칙 상 방학 때에는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때 집에 있지 않고 친구의 집으로 간다고 했다. 자신의 마을은 저녁에 무척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네가 하루만 지내보면 알게 될 거야.'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기도 했다.

## 12월 에세이-Rahul(우제)

['집'으로 초대 받다.]

나는 내가 Boy's Home 아이들을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았다. 내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그들의 가난을 이해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친구의 초대로 인해서 너무나도 부끄러워 졌다. 나는 Rahul의 초대를 받았을 때 '가난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Raonatti로써의 고민을 했었어야 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친구의 집을 방문해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인도에서 하는 것'의 의미와 'Raonatti'의 의미를 찾았어야 했다. Boy's Home으로 돌아오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던 타은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집 없는 사람들', '구걸하는 아이들'을 보고도 무뎌져 버려 초심을 4개월 만에 잃어버린 내 모습 때문이었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의 의미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더욱 고민 해야겠다.

# Commemorative Stamps Album



Bonus Page

# Commemorative Stamps Album

Bonus Page



# Commemorative Stamps Album



Bonus Page

# Commemorative Stamps Album

Bonus Page



# Commemorative Stamps Album

Bonus Page





# an Editorial Note 편집 후기



Bonus Page



마감 후면 녹초가 되어버리는 편집부원들을  
회식으로 달래고, 다시 쥘고 험박하며,  
드디어 마지막! by 선영



편집은 길고 제철은 짧다.  
by 성수



마감을 쫓으며 하얗게 불태운 밤을  
생각하면...하아...너무나 즐거웠던  
나날들이라고 생각하려고요. by 병찬

